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 연구

정복진(전북대 · 호남제일고)

〈목 차〉

- | | |
|--------------------------|-----------------------|
| 1. 서론 | 3. 시 텍스트 해석의 실제와 시 교육 |
| 2. 시 텍스트 해석의 타당성과 교육적 의의 | 4. 결론 |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문학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삶을 고양시키고 문학 문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함이다. 문학 장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삶과 문화를 얘기하는 장르로 詩(시)만큼 순간을 압축하여 이 세계를 다양하게 전달하는 ‘노래하기’도 없을 것이다. 또한 시는 감춤과 드러냄의 미를 가지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언어로 형상화된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을 준다. 즉 시 텍스트를 읽으며 독자는 자기 체험에 조응하는 순환적 관계 맺기를 통해 의미를 찾아내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 의미는 인간이 가진 원형적 상징 속에서 공유된 것일 수도 있고 개별화된 선행체험을 통해 구체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동일한 시 텍스트라도 의미가 다양하고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되기도 한다. 이

렇게 시는 활동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기에 문학 교육이 목표하는 문학 능력의 신장을 위한 좋은 교육 매체가 된다. 그러므로 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시 교육에 대한 연구는 90년대부터 근래에까지 분석주의적 시 해석의 관점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를 이룬다. 주로 수용미학 및 독자 반응이론에 중점을 둔 시 작품 해석 교육,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의 정서 체험 교육 등이 논의 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학습독자의 주체적이고 활동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문학이론보다 문학교육방법을 구체화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문학교육현장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먼저 학습독자의 기대지평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수용미학¹⁾ 및 독자반응비평의 관점은 독자가 텍스트의 의미 창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의 학습독자는 전문적 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능동적 의미구성으로의 참여를 이끌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습독자의 반응을 적절한 해석으로 인정하기엔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이저의 ‘내포독자’나 스탠리 피쉬(Stanley Fish)의 정통한 독자(the informed reader), 움베르토 에코의 ‘모델 독자’ 개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독자와 현실적인 독자는 모순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이상적인 독자는 작가와 약호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혼란이나 지체 없이 텍스트의 의미

1) 최미숙은 「현대시 해석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시학연구』, 14호, 2005. 논문(53면)에서 장영태의 책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우스는 텍스트의 해석적인 수용에서 이뤄지는 독자의 심리적인 경험 맥락을 중시한다. 『문학이론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문학사』에서 아우스(Jauf)는 “어떤 텍스트의 해석적인 수용은 심미적인 인식의 경험 맥락을 언제나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미 형성된 독자의 미적 경험 맥락을 중요시 한다. 아우스에 따르면 독자는 어떠한 텍스트에도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대 지평(horizon of expectations)’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여기서 기대 지평은 해당 텍스트 및 문학 일반에 관한 독자의 지식과 가정들로 이루어진다. Hans R. Jauf,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장영태 역, 문학과지성사, 1993, pp184-185.

이저(Wolfgang Iser)는 『독서행위(The Act of Reading, 1978)』에서 독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정 작품이 전개하는 문학기법들과 문학관습을 알 필요가 있으며 텍스트의 의미생산 방식들을 체계적으로 지배하는 범칙인 그 텍스트의 ‘약호들(codes)’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독서 하는 중에 독자는 의미 해석에 신축성이 있어야 하며 마음이 개방적이어야 하며 가까이 우리가 가진 신념들을 문제로 삼고 그 신념들이 변형되도록 허용해야한다며 텍스트의 구조화와 의미의 불확정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 김명환·정남영·장남수 共譯, 『문학이론입문』, 1990. p.100~101.

를 읽을 수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는 완전한 해석 능력을 갖춘 독자가 아니라 아직 과정 중에 있는 독자로서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인 독자의 간극이 크다.

다음으로 작품 속 언어의 인상적 의미에만 주목하여 전체 맥락을 읽어 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수정보완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족하다. 문학비평가 수준은 아니어도 감상의 풍요화 방향으로 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학적 관습에 맞는 관점에서 시를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학습독자의 능동적인 시 해석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위해 ‘타당한 해석의 조건’을 선정해 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간에 시 해석의 과정을 연구하는 사례는 많았으나 그러한 시 해석과 학습독자의 정서체험 과정에 대한 교육 방안이 실증적 사례를 통해 논의된 바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 작품에 대한 이상적 독자의 해석과 현실적 독자(학습자)²⁾의 다양한 감상 내용을 살펴 둘 간의 기대지평의 차이를 밝히고, 현실독자(학습자)가 문학적 관습에 익숙한 감상수준에 도달하는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사 및 연구 방법

현대시 교육 연구는 시 해석의 문제와 시 감상 교육 방안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시 해석에 관한 논문으로는 최미숙, 김창원, 유영희, 김정우의 연구³⁾가 있다. 이들은 해석의 과정이 시의 구성요소에서 시 텍스트로 그 다음에는 시의 거대 담론으로 나아가는 과정 등을 밝혀 학습독자의 시 텍스트 해석 과정에 유의미한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2) 본고에서 말하는 ‘이상적 독자’는 문학적 문법에 능숙한 독자를 ‘현실 독자’는 문학적 문법에 미숙한 학습독자(고교생)을 말한다. 이하 논문 전체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됨.

3) 최미숙, 『시 텍스트 해석 원리에 관한 연구-부재(不在)요소』의 의미 실현 방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김창원, 『시 텍스트 해석 모형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연구-20~30년대 시의 해석 모형과 시 교육-』,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유영희, 『시 텍스트의 담화적 해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정우, 『시 해석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텍스트 해석의 층위를 설명한 논의로는 김미혜⁴⁾, 김혜정⁵⁾, 양정실⁶⁾의 연구가 있다. 김미혜는 의미의 객관성에 대한 승인, 상호주관적 의미 맥락의 차별화, 해석학적 순환에 의한 일관된 의미 맥락의 구성 등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김혜정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은 사회문화적 상황 맥락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텍스트의 수동적인 수용차원을 넘어, 텍스트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텍스트 해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의 비판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양정실은 문학 감상 능력 향상을 위한 매개로 ‘반응 일지 쓰기’의 교육적 의미를 제시한다. 그는 독자가 텍스트를 통해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조화, 부조화, 긴장의 관계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학생의 해석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조언해야 할 것인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시 교육 영역에서 독자의 감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최지현⁷⁾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시 감상의 과정이 상상을 통한 정서 체험이라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시 감상의 과정에서 상상 작용에 의해 구성되는 정서 체험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특히 텍스트를 해석할 때 독자에게는 선이해가 존재함을 역설하며 이 이해는 은유도식 같은 사고 형식으로 또는 독자의 경험 속에서 축적된 문화적 합의로서 존재하는데 이런 이해가 텍스트를 이해하는 의미맥락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텍스트에 나타난 대상이나 타자에 대해 공감(emparthy)이라는 유사한 감정의 공유를 통해 타자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며 이를 통해 정서적인 감염(emotional contagion)

4) 김미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타당성의 조건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5) 김혜정,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적 상호 작용』,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2002.

6) 양정실, 『현실 인식의 해석 관여 현상에 관하여-〈삼포가는 길〉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 2007.

7) 최지현, 『문학정서체험-교육내용으로서의 본질과 가치』, 우한용 외, 『운당 구인환 선생 고회 기념논문집-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_____, 『한국 근대시 정서 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_____, 『감상의 정서적 거리- 교육과정 변인인 감상에 미치는 영향』, 『문학교육학』 1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을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공감은 상황의 구체성과 실제성을 높이고 학습 독자로 하여금 체험의 주체로서의 동일시나 감정 이입, 투사, 공감의 역치(거리두기) 같은 방식으로 위치설정을 하게 한다고 시 감상 과정을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학습독자의 문학체험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해석의 과정을 인지하고 시 교육 방안을 설계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유영희⁸⁾는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 2005년 대학교 3학년 전공선택 과목 ‘현대시 교육론’을 수강한 학생들이 작성한 시 감상 사례를 제시하고 유형화한 바 있다. 그는 시에 대한 감상 경향을 1)이미 알려진 이해와 감상에 의존하는 양상 2)자신의 느낌이나 직관에 기대는 양상 3)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 다른 텍스트를 적용하는 양상 4)잘못된 지식이나 맥락을 적용하는 현상으로 분류해 설명한다. 4)의 경우는 학습자들에게 보이는 지식을, 떠오르는 지식을 즉각적으로 작품에 적용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작품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분석하는 경우보다 이러한 지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이해와 감상성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최미숙⁹⁾의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데 특히 시 교육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 교육은 학습자의 시 감상을 촉진하고 풍요롭게 할 발문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비평적 독자 생산이라는 문학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교사가 어떤 매개자로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 방안을 구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2학년 필자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에 실린 김수영의 『폭포』 작품에 대한 자유 반응지 받아 그들의 감상 양상을 살피고 문학적 문법에 접근한 이상적 독자¹⁰⁾의 해석과 차이를 살펴볼

8) 유영희,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경향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9) 최미숙, 「대화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2006.
 —, 「문학 독서 교육에서 비평의 역할과 의미-김소월의 ‘산유화’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4, 2010.

—,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위한 교과별 수업 의사소통 : 문학 수업에서의 질문과 대답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6, 한국화법학회, 2014.

10) 본고에서 말하는 이상적 독자는 문학적 문법에 능숙한 독자를 말함. 각주 3)번 참고.

것이다. 다음으로 텍스트 해석의 기대지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원심적 질문에서 심미적 질문으로의 수업을 전개한 후 동료들과 감상 나누기를 통해 좀 더 타당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설계해 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타당한 시 해석의 조건과 시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시 텍스트 해석의 타당성과 교육적 의의

2.1. 독자의 기대지평과 해석의 다양성

시는 리듬감을 가진 함축적 언어로 된 의미있는 진술이다. 시는 ‘짧은 담화’ 형식의 자기고백적 문학 양식이기 때문에 많은 여백을 가지며, 독자는 이러한 빈틈을 자신의 선체험과 상상을 통해 채워나간다. 그러므로 시 해석은 단어의 축어적 의미만이 아니라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지거나 다른 것을 통해 대신 전달되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시 해석은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풀어나가는 과정이며 작품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설명을 덧붙이려고 하는 노력, 즉 작가의 텍스트에 대해 자신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행위’¹¹⁾라고 할 수 있다.

시의 해석을 ‘시를 이해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본다면 ‘시 해석은 텍스트의 기호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표시하거나 예시하는 바를 파악함으로써 작품으로서의 담론적 의미를 구체화 한 다음, 상상적 체험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¹²⁾이라 할 수 있다. 시 해석에는 상상적 체험이 작용하며 단계에 따라 상상의 작용에는 차이를 보인다. 상상은 은유도식을 통해 확장되는 심상의 확장, 혹은 연상이나 구체적 심상을 얻는 과정이다. 그 원천은 언어를 통해 구성되며 언어로 표상된 대상에 대해 정서적 공명을 함으로써 문학적 상상이 완성된다. 결국 타당한 해석이란 시가 가진 장르적 특성을 고려한 상상적 체험의 과정이며, 문학적 문법에 능숙한 텍스트 해석을 말한다.

11) 김미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타당성의 조건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12) 최지현, 『문학교육심리학』, 역락, 2014 pp.94~95.

문학적 문법이란 조너선 켈러¹³⁾가 말한 ‘문학능력(literary 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최지현¹⁴⁾이 재의미화한 것이다. 켈러는 문학능력을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텍스트를 문학 작품답게 읽을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내면화된 문학적 문법’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문학능력의 개념을 최지현은 문학적 문법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하면서 텍스트 해석에 있어 ‘의미화의 규칙’과 ‘비유적 응집성의 관습’ 그리고 ‘주제적 단일성의 관습’ 과 같은 문학의 암묵지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문학교육의 관점에서는 문학적 관습의 타당성을 함의한 작품 해석이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학습 독자의 기대 지평에 따른 작품 감상 양상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독자의 기대 지평이란 독자가 텍스트를 수용할 때 그 자신이 이미 지녀온 그 텍스트에 관한 이해의 범위나 그 한계를 뜻한다. 따라서 기대의 지평에는 텍스트를 수용하는 독자(수용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예컨대 선행적 경험으로 습득된 지식뿐 아니라 정서적 공감 요소 모두를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재 인식 행위는 여러 가지 이해 요소가 뒤섞여짐으로써 수많은 기대의 지평을 지니게 된다.¹⁵⁾ 이렇게 한 작품에 대한 ‘해석’은 텍스트와 독자의 경험이 만나 상상적인 것의 차원을 의미론의 차원으로 교차시키는 행위¹⁶⁾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장-이브 타디에¹⁷⁾는 작품의 해석은 독자의 지평에 의해 공시적 혹은 통시적으로 새롭게 구성될 수 있으며 독자의 미학적 코드와 사회적 지평의 융합하여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상을 살펴볼 때 ‘타당한 해석’의 조건은 독자의 지평과 작품의 모호성이 교차점을 이루어야 하고 그 근거가 그럴듯함¹⁸⁾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3) Culler, J, 『Structuralist Poetics』,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14) 최지현, 『문학교육심리학』, 역락, 2014, pp.144~145.

15) 전정구, 『수용미학에 관하여』, 『국어문학』 26, 전북대 국어국문학회, 1986 저자의 내용을 요약하여 실었음.

16)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학지성사, 1988 p.153.

17) 장-이브타디에, 『20세기 문학비평』, 문예출판사, 1998 pp.240~241.

18) 시 감상에서 말하는 ‘그럴듯함’이란 시의 운율, 시어의 함축적 의미,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의 맥락이 총체적으로 고려된 공감적 상상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2.2. '타당한 해석'의 필요성과 의의

문학작품은 작가가 만든 '텍스트' 하나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 의해 의미가 재생산 되고 가치가 재발견 된다. 그러나 현실의 독자가 모두 능숙한 독자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상적 독자'와 '현실 독자'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상적 독자는 표층적 결속 구조에 바탕한 의미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에 관련되는, 텍스트 외 재적인 사회 문화적인 상황 맥락과 텍스트의 내용을 관련시킴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독자는 과거의 그 텍스트가 현재의 독자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찾으려 하며, 텍스트와 관련된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과 행동을 담보 공동체 내의 공유된 것과 조정하고 협상한다.¹⁹⁾ 이를 통해 가장 적절한 의미를 재구성하려 한다. 그러나 현실 독자는 시 작품을 해석할 때 텍스트 내적 결속구조를 바탕으로 의미구조를 파악하는데 미숙하다. 텍스트 생산과 수용에 관련된 사회문화적 상황맥락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조정하고 협상하여 작가의 의도, 시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 중심의 문학 교육의 방향에 서서 시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감상을 모두 '문학적 문법에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타당한 해석'의 시 교육의 필요성이 발현된다. 그러므로 시 감상의 풍요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학습독자가 문학적 문법에 능숙한 독자에 이르게 하는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시 텍스트 해석의 실제와 시 교육

3.1. 「폭포」에 대한 다양한 해석

김수영의 「폭포」라는 시(詩)는 발표 당시를 넘어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에게 의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었다.

19) 김혜정,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적 상호 작용」,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2002.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²⁰⁾ 전문

독자마다 『폭포』에 대한 세부적 의미의 다양성과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은 다르지만 ‘폭포’라는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공통적으로 ‘자유정신’, ‘고매한 정신’으로 말한다. 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도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표면에 나타난 ‘텍스트의 결속구조’를 바탕으로 시어와 시구의 반복에 유의하여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간다. 그것이 시행 배열의 구조적 연합축을 중심으로 하든 이미지나 상징이라는 시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든 그것은 부분과 전체의 유기적 짜임새와 내용과 형식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먼저 『폭포』에 대한 구조주의 관점의 해석으로 신익호²¹⁾를 들 수 있다. 그는

20) 한철우 외, 『문학』교과서, 비상, 2015. /김수영, 『김수영 전집: 시』, 민음사, 1997의 수록본으로 동일한 것이다.

21) 신익호, 『김수영 시의 한시적(漢詩的) 구조의 병렬 반복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2,

『폭포』에서 ‘떨어진다’는 서술어가 4연을 제외한 모든 연에 반복 종결되고 있으며 이 반복 어휘는 매 연에 다양하게 변주되는 시행을 최종적으로 응집시키며 곧게 떨어지는 폭포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고 하였다. ‘곧은’, ‘~없이’, ‘~않고’와 같이 부분적으로 반복되는 시행들을 ‘떨어진다’로 초점화되는 전체적 질서 속에 통합시킨다고 했다.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폭포가 떨어지는 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있지만, 폭포가 ‘무서운 기색’도 없이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진다는 의인화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투영시킨 것이다.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의 수직적 시각화는 강직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힘찬 수직적 낙하 소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머뭇거림이 없이 당당한 결단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전정구²²⁾는 이미지 중심으로 『폭포』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그는 ‘폭포’의 모습에서 유추되는 고매한 정신의 파수꾼, 그리고 ‘폭포의 물결소리’에서 연상되는 그 선각자적인 파수꾼의 곧은 소리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앙상블을 이루면서 공감각을 창출한다고 말한다. 공감각은 시적 대상에 접하여 촉발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면서, 둘 이상의 감각으로 융합된 형태인데, 그것은 ‘폭포’의 주제를 조화롭게 형상화 한다며 이러한 기법이 김수영의 시에서 관념/주제를 예술적으로 형상화 시키는 것이라 했다.

이경희²³⁾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문 형태의 배열 양식에 의해 폭포를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적 기능의 기본적 요소가 시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얘기하였다. 『폭포』는 각 연의 주부와 술부의 각 선택(병렬적)축은 은유관계로 놓이며, 유사, 대체의 원리에 의해 시의 의미 기능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즉 ‘폭포는 ...도 없이(않고)떨어진다’라는 연합적인 축으로 옮겨지면서 각 연의 ‘폭포’와 ‘떨어진다’의 의미를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박연희²⁴⁾는 『폭포』를 1956년 이후 급부상한 생활, 반성, 지성 중심의 지식인 담론을 충분히 참조하여 창작되었으며, 특히 “절벽”이라는 역사적 단절로부터 “곧은 소리”라는 의식의 각성에 이르는, 사회적 변화의 포괄적이고 빠른

2010.

22) 전정구, 『김수영-〈폭포〉,〈풀〉-시대의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 『시와 시학』 13, 1994.

23) 이경희, 『김수영 시의 언어학적 구조와 의미』, 『이화어문논집』 8, 1986.

24) 박연희, 『‘전후’의 중층적 의미와 김수영의 문학적 정체성- 1950년대 후반기 지식인 담론과 김수영의 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9, 2010.

진행에 대한 수용태도와 그에 대한 믿음을 수반하는 자유의지를 극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았다.

전동진²⁵⁾은 「폭포」는 상징의 영원성과 알레고리의 파편화된 시간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상징으로 표상되는 영원성과 알레고리로 표상되는 부정성의 아포리즘(aphorism -신조나 원리를 간결하게 표현한 것, 널리 인정 받는 진리를 명쾌하고 기억하기 쉬운 말로 나타낸 것)을 통해 폭포와 같은 우리의 삶의 지속성은 유지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영원의 부정성과 부정의 영원성’이라는 아포리즘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교차하면서 삶을 밀고 나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견해를 살펴 볼 때 「폭포」는 ‘고매한 정신’이라는 부단한 자기 반성의 의지와 각성을 강조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이 긴밀한 형식적 짜임새와 내용 속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3.2. 「폭포」에 대한 학습 독자의 감상

시 텍스트를 이루는 언어는 함축적이며, 대상과 의미하는 바와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시의 의미는 수렴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상적(문학적 문법에 능숙한) 독자와 현실(학습) 독자²⁶⁾의 「폭포」에 대한 해석을 비교해보았다. 또한 학습독자가 「폭포」라는 시를 해석한 내용을 유형화해 보고 그 감상의 과정을 살펴 보았다. 다음 < 표1 >은 둘 간의 「폭포」 해석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표1> 「폭포」에 대한 해석

	이상적 독자	현실 독자
폭포	· 자유, 초월의 향한 시인 의식의 지향성	· 인간의 한계 · 사람들의 나태함을 비판하는 목소리

25) 전동진, 「상징의 항상성과 알레고리의 가변성- 김수영의 「폭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9, 2013.

26) 2015년 4월 전주시 일반계고 남녀 고등학생 2학년 175명을 대상으로 문학 교과서에 실린 「폭포」를 감상한 자유반응지를 작성하였다. 본고에서는 고교생을 현실독자로 명명하며 이는 학습 독자로 문학적 문법에 미숙한 독자로 보았다.

폭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의지를 극적으로 형상화함. · 영원성과 파편화된 시간성 · 죽음의 의미 · 자유의 정신 곧 능동성의 상징 · 스스로의 규정을 벗어난 정신 · 고매한 정신의 파수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마다 입시지옥에 사는 고교생의 자화상 · 설 새 없이 일하는 사람 · 끈게 살라는 메시지 · 끈게 자기할 일을 하는 듯한 모습 · 부정적인 현실에서도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들 · 민중 · 자유정신 · 술병.....
----	--	---

<표1>를 보면 현실 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배경지식의 범주 안에서 작가의 생활과 관련지어 시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적 독자는 시의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짜임새 속에서 시인의 의도를 추리하며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담론상황을 고려한 해석을 한다. 이에 반해 현실 독자는 인상 깊은 구절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과 배경지식을 대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시 작품을 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기에 그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발견하거나, 작가에 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대입하는 형식의 시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실 독자는 시 작품 전체와 부분의 유기적 연결성을 파악해 작가의 의도까지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에 접근할 때 구절구절 시어의 함축적 의미에만 초점을 두거나 자신의 선경험을 떠올리며 시의 내용을 그에 대응시키게 되면 파편적 이미지에 국한하여 타당하다고 보기엔 어려운 해석이 나온다.

아래에 제시된 학생(a)은 마지막 구절의 반복이 ‘폭포’가 강조한 ‘고매한 정신’의 의미를 다시 변주하여 전달하는 것인지 모른 채 파편적 인상에 의존하여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작가가 예비한 은유도식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시작은 ‘폭포’에서 출발했지만 ‘폭포’라는 시 안에서 작가의 의도를 추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경험에 시 작품의 시구를 연결시키며 자신의 경험을 상상하는데 시 작품의 내용을 끌어오는데 그치고 있다.

(a) ‘폭포’라는 작품을 감상하고 나는 마치 내 눈앞에 폭포가 있는 듯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졌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보았던 폭포가 떠올랐다. 작품에서, 특히 마지막 연이 인상깊었는데, 그 이유는 시구를 매우 잘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나도 이 표현에 공감되었다 내가 폭포를 보았을 때도 너무 멋있고 정신이 맑아져서 이와 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폭포를 대표적인 자연현상으로 여긴다고 들었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큼 멋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올곧은 생각을 드러내는 것 같다

아래의 또 다른 학생(b)은 자신이 느끼는 거대한 폭포의 모습을 연상하고 거기에서 확장된 폭포의 의미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폭포’라는 시를 읽었을 때 시로써 접근하기보다 해결해야할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시의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이 학생은 시를 볼 때 자신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의 당황스러움과 긴장이 작용하기 때문에 ‘폭포’라는 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b)폭포라는 시를 읽고 있자니 시에서 묘사한 것처럼 곧게 떨어지는 폭포가 떠올랐다. 나는 아직 그런 폭포를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상상해 볼 수는 없었지만, 가끔 산에서 보던 미약한 폭포와는 달리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특히 3연을 읽고 어두운 밤중에 폭포 소리만 들리는 듯한 장면이 떠올라서 더욱 무서웠다. 언젠가 모의고사 기출을 풀다가 이 시를 포함해서 3개의 시 모두 폭포에 관한 시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 시에서 유난히 차가움을 느꼈던 이유도 그래서였나 보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폭포가 세상을 향한 올곧은 정신을 비유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나는 마지막 연을 읽고 시인이 폭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인줄 알았다. 내가 느낀대로 시를 감상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다음 학생의 글은 작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경우다. (c)학생의 경우 김수영의 시는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이 많다는 배경지식으로 그의 작품에 나오는 대립적 시어를 찾고 부정과 긍정의 이분법적 해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밤’은 항상 부정적 현실이라고 도식화한 모습이 보인다. (d)학생의 경우도 폭포를 민중으로 해석하며 고매한 정신으로 곧은 소리를 내며 독재와 불평등의 상황에 항거하고 충돌이나 죽음도 불사하

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인 주체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중’의 모습은 김수영의 ‘풀’에 그려진 유연한 능동성을 지닌 ‘민중’과는 상통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김수영의 시를 저항시로 인식하는 것은 시의 의미를 한정짓고 지식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 ‘폭포’를 쓴 작가인 김수영은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성격의 글을 많이 쓴 시인으로, 작가가 쓴 또 다른 시인 ‘풀’이 생각났다. 이 작품에서 금잔화도 인가도 없는 보이지 않는 밤이 되어서도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하였는데 부정적인 현실속에서도 소신껏 행동하는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높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가 생각이 나서 웅장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 연에서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폭포가 떨어진다 하였는데, 이를 통해 작가가 ‘나타와 안정’이라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폭포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4연의 의미 파악이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다.

(d) 폭포의 물은 민중들 같다.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쉽게 떨어진다는 구절은 독재, 불평등이라는 장애물을 이기고 자유를 얻기 위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민중들의 모습 같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는 구절은 한두 사람으로 시작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의 힘이 모이고 이 힘은 마침내 사회의 부조리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구절은 민중들이 정치인들의 나태함과 편안함을 봐주지 않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자주적인 모습 같았다.

다음 학생의 글은 자신의 상황에 대응해서 시의 의미를 쓴 경우이다. 이 학생의 경우 자신이 놓여진 환경에서의 불안과 긴장감을 연상하는 쪽으로 연결시켰다.

(e) 2연에 나오는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나와 같은 학생을 떠올리게 했다. 고매한 정신은 아니지만 무엇을 향하는 지도 잘 모른

채 무작정 의미없이 공부를 해 보려는 내 모습 같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학교 진도 같다. 취할 순간조차, 내가 따라가기도 힘들만큼 먼저 앞서 나아가버리는 공부들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곧은 소리,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 아무도 없는 독서실에서 내가 곧은 소리처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는 말처럼 곧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는 설 새 없이 떨어지는 내 성적같다.

시 작품에 대한 해석을 '윤리적 가치의 발견'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찾아낸 시적 의미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생활을 실천해나가는 태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f)다른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폭포는 곧은 절개의 상징이다. 또 위에서 아래로 변함없이 흐른다는 점에서 겸손함의 상징인 것 같다. 폭포 소리는 매우 웅장하고 근엄하여 듣고 있으면 마음을 안정시켜준다. 멈추지 않고 매일 같은 자리에서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시에서 폭포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한 길로 흐르는 폭포는 여러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의 작가는 그런 폭포의 모습을 자신의 이상향으로 삼고 시를 쓴 것 같다. 나는 폭포를 읽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변함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을 반성하고 폭포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커다랗고 웅장한 모습에 비해 한없이 위에서 아래로 곧게 떨어지는 폭포처럼 나 역시도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폭포처럼 겸손함을 갖추고 자만하지 말아야겠다.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곧은 자세는 나 혼자 있을 때도 잊지 말아야겠다.

시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고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 겸손하다거나 여러 유혹에 굴하지 않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과도하게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시 안에는 뭔가 모범적이고 마치 사대부 양반들이 추구했던 것 같은 긍정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한 듯하다.

한편 시에 대해 '텍스트'의 구조적 짜임새부터 접근하여 시의 의미를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시행에 배열된 시어로부터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이 연상하는 내용을 인간의 삶에서 유추해 내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가는 학생도 있었다. 이 학생은 작가가 『폭포』의 강렬함과 거센 물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며 작가 자신과 독자에게 지향하는 바를 드러낸 것임을 파악하였다.

(g)'폭포'란 이 시를 읽기 전 나의 생각은 크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물살이었다. 이 시의 작가는 나와는 다른 시각으로 폭포를 바라보았다. 폭포의 쉬지 않고 떨어진다는 점, 장애를 받거나 멈춤 없이 떨어진다는 점, 시기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떨어진다는 점, 일정한 소리를 내며 곧게 떨어진다는 점 등 여러 폭포의 특징을 통해 예찬하고 있다. 또한 폭포의 이러한 특징들을 인간 세계에서도 적용해야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언가를 도전할때 거침없이 하는 것, 시기와 관련없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 끝은 말로 끝은 말을 부르라는 것 등 여러 교훈을 주고 있었으며 또, 마지막 연에서는 폭포가 빠르고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에서 나태한 행동과 안정이 와도 또다시 노력해야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폭포'를 나와 다른 시각으로 관찰하여 그 속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했으므로 놀라웠고, 폭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 세계에도 이처럼 자세히 관찰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면 또 다른 배울 점이 생길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생들의 해석을 보면 1)작품의 부분적 인상을 바탕으로 시의 느낌을 말하는 경우 2)작품과 작가에 대한 지식을 도식적으로 대응시키는 경우 3) 작품 속 대상이 가진 긍정적 속성을 바로 윤리적 가치로 대응시키는 경우 4) 작품에 자신의 현재적 상황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경우 5)작품의 결속구조를 바탕으로 시의 의도를 추리해 내는 경우 등이다.

학습 독자는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의 결속 구조에 따른 해석보다 이미지 중심과 자신의 상황에 비춘 감상적 해석이 주를 이룬다. 물론 시 감상의 의미는 어느 한 쪽으로 한정지을 수 없다. 자신의 생활에 비춘 감상도, 문학적 지식의 대입을 통한 감상도, 자신의 심리적 불안을 떠올린 감상도 모두 시 감상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다. 그러나 문학적 이해와 생산을 목표로 하는 문학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감상적 해석에 그치는 것은 시

감상의 풍요화라는 이상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문학적 문법'에 능숙한 시 감상 교육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3.3. 문학적 문법에 타당한 시 교육

시 감상은 시 텍스트의 풍요로운 감상에서 출발해야한다. 이때 '감상'은 텍스트의 유기적 형식의 발견과 함축적 의미의 다양함을 상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대행²⁷⁾은 감상이 그저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생각해 버리라는 방임이 아니라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판단에 이끔으로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최지현²⁸⁾은 문학 감상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설계에서 목표 중심보다는 절차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문학감상교육 모형은 학습자의 실제 감상과정에 정합하는 교수학습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비평교육이나 창작교육과 연계된 세부 절차 모형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볼 때 시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감상은 좀 더 객관적인 감상 즉 문학지식, 문학적 사고력, 문학 소통 능력, 문학에 대한 가치와 태도, 문학 경험 등에 비추어 타당한 감상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폭포』를 해석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해 보았다. 그 방안의 설계는 최미숙²⁹⁾과 윤현비³⁰⁾의 절차상의 방법을 따랐고 세부적 내용은 필자가 마련하였다. 작품의 내용과 요소를 이해하는 원심적 질문을 통해 텍스트의 이해를 돕고 심미적 질문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추론하고 확장하고 평가하도록 한 활동지를 다음과 같이 설계해 보았다.

27)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p.177.

28) 최지현,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선정어문』 2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8.

29) 최미숙, 「대화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호, 국어교육학회, 2006.

30) 윤현비, 「문학감상수업의 질문양상분석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수영의 『폭포』 감상 활동지 양식

<p>김수영 '폭포'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p>
<p>내적 대화>-원심적 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포'를 보았던 경험이 있었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자. ○ '폭포'를 낭송해보자. ○ 김수영의 시 '폭포'는 느낌이 어떤가? 무엇이 생각나는가? <p>내적 대화>-원심적 질문+심미적 질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폭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가? 2.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은 어디인가? 3.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어느 곳인가? 4. '폭포'가 어떻게 떨어진다고 했는가?언제 곧은 소리를 낸다고 했는가? 5. 왜 하필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는가? 6.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는 무슨 의미일까? 7.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는 무슨 뜻일까? 8.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어떤 의미일까? 9. 이 시에서 작가는 무엇(주제/의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10.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이미지, 비유, 상징, 반복, 변주, 관념의 구체화 등등) 11.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추어 '폭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써 보시오. <p>형적 대화>심미적 질문</p> <p>친구들과 자신이 시를 읽으며 1~10번까지 답했던 내용에 대해 얘기해 보시오.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이 해결되었나요? 해결 되었다면 그 내용을 말하고 써보세요.</p> <p>종적 대화>심미적 질문</p> <p>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폭포'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시의 의미 정리하기</p>

위의 활동지를 바탕으로 학습자들 간의 대화를 통해 시를 감상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은 가장 인상 깊은 구절과 핵심어로 주로 '곧은 소리'를 꼽았으며 주제로 올바른 태도를 실천하며 살라는 의도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폭포'의 의미를 주로 세상을 향한 울골은 정신이라고 해석하였다. 주제를 말하는 방식으로 비유-직유, 은유, 상징, 반복의 기법 등을 말하였고 '폭포는~떨어진다'가 반복 되면서 지속적으로 '폭포'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인상 깊으면서도 가장 의미를 말하기 어려워하는

구절은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부분이였다. 이 구절에 대해 1)곧은 소리가 어우러져 더 큰 소리를 낸다는 것 2)앞이 곧은 소리를 내면 뒤도 곧은 소리를 낸다. 3)바른 행동은 바른 행동을 야기 시킨다. 4)곧은 소리에 이어 곧은 소리가 또 들린다는 뜻으로 한결같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5)폭포가 끊임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비유한 것 같다고도 하였다. 또한 활동지의 발문을 보며 친구들과의 대화를 한 후 개인이 자유반응으로 감상할 때 보다 정교한 감상을 해 볼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활동지 제시를 통해 시 감상의 과정에 정교함을 제공하는 것이 외에도 공감적 조절을 통해 학습독자의 감상을 조력하였다. 공감적 조절³¹⁾은 독자가 문학 주체로서 작품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정서제인과 역할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정서제인이라 자신이 읽고 해석한 내용으로부터 그 내용 속에 존재하는(또는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타자의 정서를 인지하는 과정이며, 역할 수용은 시인/작가의 의도대로 대리 체험하거나 성찰적 역할이나 감정 이입적 역할을 하며 독자 내면에 재구성된 은유도식에 따라 작품을 해석해가는 것이다.

필자는 학습자가 ‘폭포’라는 작품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먼저 ‘폭포’라는 대상을 인식하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감각을 사용하는지 발문하였다. 학습자들은 시각과 아울러 청각적 요소가 ‘폭포’라는 대상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 후 작품 속 타자가 되어

「폭포」라는 작품 안에 ‘폭포’의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 되었는지 확인하게 하였다. 총 5연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폭포’를 감각적 심상을 통해 전달하며 그 안에 화자의 삶의 태도가 그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음으로 ‘폭포’라는 시에 나타난 ‘의미화의 규칙’을 찾게 하였다. 이를 위해 ‘폭포’라는 시에서 폭포를 의미하는 다른 방식의 표현을 찾으라 하였고 2연의 ‘규정할 수 없는 물결’, 4연의 ‘곧은 소리’, 5연의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등을 찾고 그것이 각 연에 처음에 제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랬을 때 결국 1~5연의 각각의 연은 ‘폭포는~떨어진다’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음을 알게 하였다.

각 연의 구성을 살펴 1~2연과 5연은 ‘폭포’의 시각적 모습을 곧고 수직 낙

31) 최지현, 『문학교육심리학』. 역락, 2014, pp.157~159. 공감적 조절과 정서제인, 역할 수용의 개념에 대해 참조.

하하는 강렬함이 느껴지게 그렸고, 3~4연은 ‘폭포’를 청각적 심상으로 매질의 방해 없이 좀 더 멀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떨어지는 소리만으로도 대상의 상태를 상상할 수 있도록 형상화 했다는 것을 찾게 하였다. 또한 ‘폭포’라는 작품에서 2연과 5연은 ‘폭포’를 시각적 심상으로 전달하고 있으면서 각 행간의 비유와 동일한 의미의 언어적 변주를 통해 ‘비유적 응집성의 관습’을 형성하고 있음을 찾게 하였다. <표2>은 본문의 시행배열 <표3>는 시의 비유적 응집성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2연3행)’는 지속성과 순환성을 드러내는데 이는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5연2행)’에서처럼 찰나의 단절도 허락치 않다는 면에서 결국 지속성과 같은 의미를 해석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표2> 「폭포」 본문의 시행 배열

2연		5연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1행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1행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2행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2행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3행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3행
고매한 정신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4행	높이도 폭도 없이	4행
		떨어진다.	5행

<표3> 「폭포」의 비유적 응집성의 관계

2연		5연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1행 =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1행
		폭도 없이	4행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2행 =	높이도~~~~~없이	4행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3행 =	순환성, 지속성	3행
고매한 정신처럼	4행 =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3행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4행 =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2행
		떨어진다.	5행

<표3>를 보면 2연과 5연은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하며 시행배열도 마치 마주보듯 2행-4행 4행-2행 형태로 배열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지막

5연의 5행은 ‘떨어진다’는 시행을 행을 나눠 배치함으로써 ‘폭포’의 떨어지는 마지막 물방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섬세한 감정의 스펙트럼이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결국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떨어진다.’ 즉 앞서 1연에 제시되었던 ‘폭포는~떨어진다’의 구성과 동일한 의미를 다른 시어 선택으로 변주한 것이며 ‘주제적 단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3연과 4연은 청각적 심상의 면에서 3연에서 처음 등장한 폭포의 곧은 소리는 4연에서 소리라고 서술되며 그것은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는 것으로 응집성을 갖고 연결되어 있음을 찾아보도록 하였다. 또한 ‘폭포’라는 구체적인 자연물을 2연의 ‘고매한 정신처럼’, 5연의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라는 추상적인 것에 비유를 통해 드러낸 것은 ‘폭포’가 단순히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나 가치관이 대상에 투영된 것임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적 화자가 말하는 ‘고매한 정신’은 다시 말해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떨어지는 폭포에 주목하는 화자를 통해 결국 화자는 기존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떨어진다’는 서술어의 배치가 1연, 2연, 3연의 마지막 행에 배치되었으며 5연 역시 마지막 행이지만 행 나눔을 통해 ‘폭포’의 낙하 모습에 대한 강한 여운을 남기며 독자로 하여금 이 부분에 주목하고 음미하게 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도 살펴보게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학습 독자와 교사는 ‘폭포’라는 작품은 대상의 수직 강하하는 속성에서 강렬함과 지속성과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음을 발견하고, 주제적 자유의지라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투영하여 전달하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공유하였다. 더불어 이 시가 쓰인 시대를 확인하고 이러한 상황이 단지 그때 뿐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넘어 의미가 재부여 될 수 있음을 공감하였다.

이러한 작품 이해의 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시라는 것이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짜임새로 이루어져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학적 문법에 익숙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표면적 구조와 이면적 결속구조를 살펴 볼 수 있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4. 결론

현대시 교수·학습의 목표는 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자의 삶에 대한 성찰이나 삶의 태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학습자 자신의 것이 되는 시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시 교육에서 가정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학습자 변인의 다양성과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 태도이다. 그러나 학습자 변인의 다양성과 작품 해석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독자 감상의 수용 면에서 무조건적 수용보다는 객관성과 타당성이라는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 즉 시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시 감상 교육은 단계화, 절차화에 따른 논리적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감상 교육에 대한 논의는 이미 앞서 살펴 본 내용처럼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문학 해석의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거나 대학교 국어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실제 고교 심화 선택 과목으로 ‘문학’을 배우는 현실 독자인 고교생의 반응을 분석하고 시 해석 교육 방안을 제시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 면에서 이 연구는 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방법에 대한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제안한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은 결국 문학적 문법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이라 할 것이다. 즉 시 텍스트를 감상할 때 ‘의미화의 규칙’과 ‘비유적 응집성의 관습’ 그리고 ‘주제적 단일성의 관습’ 등을 읽어 낼 수 있는 능력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시 해석의 조건과 시 교육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타당한 해석이란 시 텍스트의 구조적 결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독자의 상상적 체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시 해석이 텍스트의 유기적 형식과 내용의 짜임새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의 의도를 향해 통일성 있는 추체험의 과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히 시 구절이나 시어의 인상적인 이미지만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하겠다.

둘째, ‘공감적 조정(sympathetic regulation)’이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시 해석을 타당도가 높은 해석이라 할 것이다. 공감적 조정은 교사의 체험과 학습자의 체험이 교수·학습 과정에서 서로 교류되면서 심화되고 풍요화되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능숙한 독자인 교사와의 종적 대화를 통해 현실독자의 한계를 좀 더 극복해야함을 말한다.

셋째, 작품이 생산 수용된 시대적 배경을 넘어 현시대를 사는 담화공동체에 의해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한 해석을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독자와 텍스트는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생산하기 때문에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에 의미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는 유연하게 확장되고 서로 다른 시대에 다른 시각에서 다시 조명해 볼 수도 있다. 물론 해석의 과정에서 원작의 의미와 유리(遊離)되서는 안 되며 원작의 본질적 의미와 닿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만 기존의 시인이나 시 작품에 대해 가지는 화석화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이육사나 윤동주의 시는 일제에 항거한 저항시 등으로 화석화하지 말고, 개인의 내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편성을 부여하게 되면 다른 공간 다른 시대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 짧은 형식으로 많은 것을 집약하여 전달한다. 또한 언어가 가지는 기호성과 불확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하여 의미를 다층화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운 장르이다. 그러나 의미의 다양성이라는 시의 특성 때문에 오히려 시는 한 단어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찰나와 사연을 압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어의 고운 결을 하나하나 열어 보면 인간의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인상과 파편적인 의미에만 주목하는 시 해석이 아니라 시의 작품의 전체와 부분을 고루 잘 들여다볼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대행, 『문학교육 틀짜기』, 역락, 2000.
김대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수영, 『김수영 전집: 시』, 민음사, 1997.
김정우, 『시 해석 교육론』, 태학사, 2006.
김준오, 『詩論』, 삼지원, 1992.
신익호, 『현대시론』, 박문사, 2014.
오규원, 『현대시작법』, 문학과지성사, 2002.
유영희, 『이미지로 보는 시 창작교육론』, 2003.
윤여탁 외, 『현대시 교육론』, 사회평론, 2011.
장-이브 타디에, 『20세기 문학 비평』, 문예출판사, 1995.
전정구·김영민, 『문학이론연구』, 새문사, 1999.
제라르 델포·안느 로슈, 『비평의 역사와 역사적 비평』, 문학과지성사, 1993.
차봉희, 『수용미학』, 문학과지성사, 1988.
최지현, 『문학교육심리학』, 역락, 2014.
테리 이글턴, 김명환·정남영·장남수 共譯, 『문학이론입문』, 1990.
프랭크 란트리카아·토마스 맥로린 공편, 『문학연구를 위한 비평용어』, 한
신문화사, 1994.
한국시학회, 『한국시학연구』 제14호, 한국시학회, 2005.
한철우 외, 『문학』 교과서, 비상, 2015.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Culler, J, *Structuralist Poetics*, NY : Cornell University Press, 1975.
Thomas R. Arp / Greg Johnson, *Perrine's SOUND & SENSE*, 13판,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1.

2. 논저

- 김남희, 『현대시의 서정적 체험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대행, 『사고력을 위한 문학교육의 설계』, 『국어교육연구』 5(1), 서울대학

- 교 국어교육연구소, 1998.
- 김미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타당성의 조건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2003.
- _____, 「문학교육에서 지식의 재개념화를 위한 연구」, 『문학교육학』 19,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 김양희, 「시적 화자의 유형에 따른 시 교육 방안 2011개정 교육과정 중등 국어 교과서 16종에 수록된 작품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정현, 「金素月 詩의 感情과 ‘音聲의 텍스트’ 그리고 傳統의 問題」, 『어문연구』 41(2), 2013.
- 김혜정, 「텍스트 이해에서 의미 구성의 층위와 인지적 상호 작용」,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2002.
- 민재원·김창원, 「‘학문중심교육과정’의 지향과 시교육의 이데올로기」,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2011.
- 박연희, 「‘전후’의 중층적 의미와 김수영의 문학적 정체성- 1950년대 후반기 지식인 담론과 김수영의 시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29, 2010.
- 신익호, 「김수영 시의 한시적(漢詩的) 구조의 병렬 반복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42, 2010.
- 양정실, 「반응 일지(response journal) 쓰기의 문학교육적 함의」, 『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 양정실, 「현실 인식의 해석 관여 현상에 관하여-〈삼포가는 길〉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용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 2007.
- 유영희, 「학습자의 현대시 감상경향에 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 윤현비, 「문학감상수업의 질문양상분석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경희, 「김수영 시의 언어학적 구조와 의미」, 『이화어문논집』 8, 1986.
- 전동진, 「상징의 항상성과 알레고리의 가변성- 김수영의 「폭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9, 2013.
- 전정규, 「김수영-〈폭포〉,〈풀〉-시대의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 『시와 시

- 학』 13, 1994.
- 최미숙, 『현대시 해석 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시학연구』 14, 2005.
- _____, 『대화 중심의 시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6, 국어교육학회, 2006.
- _____, 『지식의 사회적 구성을 위한 교과별 수업 의사소통: 문학 수업에서의 질문과 대답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6, 한국화법학회, 2014.
- 최지현, 『한국 근대시 정서 체험의 텍스트 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_____, 『문학감상교육의 교수학습모형 탐구』, 『선청어문』 26, 서울대학교국어교육과, 1998.
- _____, 『문학정서체험-교육내용으로서의 본질과 가치』, 우한용 외, 『운당구인환 선생 고회기념논문집-문학 교수학습 방법론』, 삼지원, 1998.
- _____, 『감상의 정서적 거리- 교육과정 변인인 감상에 미치는 영향』, 『문학교육학』 1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국문초록】

이 연구는 수용미학 및 독자반응이론에 중점을 둔 시 교육에 대한 한계를 밝히고 타당한 해석을 위한 시 교육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먼저 그간의 시 교육의 논의를 해석의 문제와 감상교육의 문제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수용미학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이상적 독자와 현실 독자의 해석에 간극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 독자’란 이저의 이론에 따른 것인데 특정 작품이 전개하는 문학기법들과 문학관습을 알고, 텍스트의 의미생산 방식들을 체계적으로 지배하는 법칙인 그 텍스트의 ‘약호들(codes)’을 아는 독자를 말한다. 즉 텍스트의 구조화와 의미의 명확정성에 대해 능숙한 독자를 말한다. 또한 ‘문학적 문법’이란 ‘의미화의 규칙’과 ‘비유적 응집성의 관습’ 그리고 ‘주제적 단일성의 관습’ 등을 말한다.

이상적 독자는 텍스트의 유기적 결속구조를 바탕으로 시적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는 독자를 말한다. 그러나 현실 독자인 문학을 배우는 고교생으로 아직은 문학적 문법에 미숙한 독자이며 이들은 텍스트의 인상적 의미만을 중심으로 감상하는 독자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문학교육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실독자(고등학생)가 문학적 문법에 비추어 타당성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수영의 「폭포」라는 작품에 대한 이상적 독자와 현실적 독자의 다양한 해석의 양상을 비교하고 현실 독자의 시 감상을 풍요롭게 이끌기 위한 원심적 질문과 심미적 질문을 담은 수업지도 방안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시 텍스트의 결속구조 살피기, 공감적 조정하기, 사회문화적 담화공동체와의 대화를 통해 타당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타당한 해석, 이상적 독자, 현실적 독자, 기대지평, 문학적 문법, 원심적, 심미적

【Abstracts】

A Study of Poetry Teaching for a reasonable[valid] interpretation

Jeong Bok-jin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thod of poetry teaching for a reasonable[valid] interpretation. Poetry teaching is based on reception theory and reader-response criticism until now. but these theories have limits that is a gap between ideal reader and real reader. It means that the real readers are less likely the possibility of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an ideal reader. The concept of an ideal reader is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the Iser, Ideal readers know certain works of literature and literary techniques to deploy customs, production methods means that the text of the law governing them systematically in the text's codes (codes)' means the reader knows. That speaks fluent readers about the indeterminacy of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text. In addition, the literary grammar means 'rules of signification', 'customs of the figurative coherence' and 'customs of thematic unity'.

Ideal reader can be interpret a poetic sense, based on the organic structure of the text cohesion. However, the real reader is still in inexperienced readers to the literary grammar and they impressed with

only a sense of the text the appreciation. This paper has highlighted the real reader(High School student) Literature In order to fulfill its role must map to the validity interpreted in light of the literary grammar.

To support this discussion, compare the various aspects of the practical interpretation of the real reader and ideal reader for a work called "waterfall" of Kim Soo Young. And heading to enrich the appreciation of the real readers class teaching methods were designed containing the centrifugal questions and aesthetic questions. And to a comprehensive discussion over, it said that it is possible to reac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rough dialogue and cultural discourse community, observe binding upon the structure of the text, empathic coordination.

Key word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a literary grammar, Horizon of expectations, ideal reader, real reader, esthetic, centrifugal question

이 논문은 2015년 9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5년 10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5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